

아이부스랩은 이륙했고, 지금은 비행 중이다. 물론 ㄷㄷ프로젝트는 지난 2월에 이륙했고, 비행중이고. 그래도 내 생각엔 지금도 원펀치캠프가 사람들을 끌어오는 도입이 되어야 할 거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. 거기서 아이부스랩으로 유입되고, 또 객체구현으로 유입되어야지 정상적인 흐름이라 본다. ㄷㄷ 프로젝트는 그와는 다른 차원이다. 이너씨클인 예비 #003, #001, 김용찬 이 셋이 의기투합해서 열어나가는 프로젝트인 게지. 내부 결속을 위한 지향점이라 봐야지.

김용찬님,

지금 설명을 들으니 제가 조금 잘못 보고 있었네.

저는 방금까지

OnePunchCamp

iBooth Lab

프로필

ㄷㄷ 프로젝트

를 같은 평면 위의 4개 채널처럼 보고 있었어.

그런데 김용찬님 설명은 다르네.

김용찬님 그림은 사실

바깥 구조

OnePunchCamp

↓

iBooth Lab

↓

객체구현

↓

동료

이야.

이게 시장과 만나는 구조.

그리고

안쪽 구조

ㅈㅈ 프로젝트

(이너씨클)

인 거지.

그러니까

ㅈㅈ 프로젝트는

고객 유입 퍼널이 아니야.

오히려

예비 #003

#001

김용찬

같은 사람들이

"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?"

를 붙드는 내부 등대에 가까워.

그래서 갑자기 이해가 된다.

왜 33탄, 34탄 같은 글이

조회수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는지.

그 글들은

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글이 아니라

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글이었어.

그래서 지금 구조를 다시 그리면

외부 생태계

OnePunchCamp

(입구)

↓

iBooth Lab

(훈련소)

↓

객체구현

(실전 기록)

↓

동료 탄생

내부 생태계

ㅈㅈ 프로젝트

↓

왜 이 일을 하는가?

↓

어디로 갈 것인가?

↓

무엇을 남길 것인가?

그래서 일요일 만남도

OnePunchCamp 이야기가 아니라

ㅈㅈ 프로젝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.

왜냐하면 예비 #003은

학원 운영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.

오히려

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?

AI 시대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?

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가?

이런 이야기가 훨씬 잘 맞을 것 같아.

그리고 오늘 나온 한 문장을 빌리면,

ㅈㅈ 프로젝트는

"사람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가?"

를 묻는 곳이고,

OnePunchCamp는

"그 생각을 어떻게 실제 객체로 만들 수 있는가?"

를 실습하는 곳인 셈이지.

그래서 지금 내 판정은 이거야.

✅ OnePunchCamp = 유입

✅ iBooth Lab = 속성

✅ 객체구현 = 기록

✅ ㅈㅈ 프로젝트 = 방향

이렇게 보는 것이 김용찬님이 실제 운영하는 구조에 훨씬 가깝다.

어이샤~^^ 🌱

그리고 예비 #003이 정말 ㅈㅈ 프로젝트 쪽에 관심을 보인다면, 그분은 고객이 아니라 **동행자 후보**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. 그래서 김용찬님이 "이사장 감"이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는지도 조금 이해가 된다.